

-아/어 봤던들

~해 봤던들 — 해 보았더라도 소용없었을 것

하지 않은 시도를 가정하고, 그랬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으리라고 결론짓습니다. 다음 표현과 한 계열인 반사실 표현입니다: -(으)ㄴ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하다 동사	해 봤던들	말하다 → 말해 봤던들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ㅜ	-아 봤던들	찾다 → 찾아 봤던들
그 밖의 모음	-어 봤던들	만들다 → 만들어 봤던들
봤 없이	-았/었던들	알았던들
뒤 절	달라질 것 없음	달라질 것은 없었다
후회를 나타낼 때	-았/었더라면	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릅니다: 해 봤던들, 말해 봤던들, 찾아 봤던들. 어미 던들은 봤 없이 붙기도 합니다: 알았던들.

가정한 시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, 뒤 절은 그랬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었을 것: 그때 말해 봤던들 달라질 것은 없었다.

이라고 말합니다. 이 무용함이 다음 표현과 구별되는 점입니다: -았/었더라면 — 이것은 놓친 기회를 후회하며 상황이 더 나아졌을것이라고 암시합니다.

문체는 매우 예스럽습니다. 현대 글에서는 같은 뜻을 더라도나 아 봤자로 나타냅니다.

■ 예문

- 1 그때 말해 봤던들 달라질 것은 없었다.
- 2 아무리 찾아 봤던들 나올 리가 없었다.
- 3 일찍 알았던들 무슨 수가 있었겠는가.
- 4 말려 봤던들 그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.
- 5 직접 만들어 봤던들 결과는 마찬가지였으리라.
- 6 서둘렀던들 이미 늦은 뒤였다.

■ 비교

-았/었더라면

구별해 두어야 할 짝입니다. 더라면은 놓친 기회를 후회하며 더 나왔을 것이라고 암시하고, 봤던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

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. (후회) / 일찍 알았던들 소용없었다. (어차피 소용없음)

-(으)ㄴ들

같은 틀이 현재를 향한 것입니다. -(으)ㄴ들은 지금의 일을 가정하고, 봤던들은 과거의 일을 가정합니다.

후회한들 소용없다. (현재) / 말해 봤던들 소용없었다. (과거)

-아/어 봤자

같은 무용함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형태입니다. 봤자는 구어적이고 현재를 향하며, 봤던들은 예스럽고 과거를 돌아봅니다.

말해 봤자 소용없어요. (구어) / 말해 봤던들 달라질 것 없었다. (문어)

■ 주의

✗ 일찍 알았던들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.

○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.

던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결론짓습니다. 놓친 기회를 후회할 때는 더라면을 씁니다.

✗ 지금 말해 봤던들 소용없다.

○ 그때 말해 봤던들 소용없었을 것이다.

이 구문은 과거의 일을 가정합니다. 현재에는 -(으)ㄴ들이나 봤자가 맞습니다.

✗ 야, 말해 봤던들 소용없어.

○ 야, 말해 봤자 소용없어.

봤던들은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-아/어 봤자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.